

다시 푸는 경서

진심직설(眞心直說) 20

若人靜坐一須臾 勝造恒沙七寶塔
악인정좌일수유 승조항사칠보탑
寶塔必覺化爲塵 一念淨心成正覺
보탑필경화위진 일념정심성정각
故知無心功 大於有心也
고지무심공 대어유심야

리고 물러갔다. 이로써 본다면 공덕이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스스로 갖추어졌음을 알 수 있다. 사조(四祖: 道信)대사가 나옹선사에게 '내가 백천 가지의 법문이 모두 마음에 들어가고, 항하(恒河)의 모래알처럼 많은 공덕도 다 마음에 있으므로 일체의 계행, 선정(禪定), 지혜의 문과 신통 변화도 다 스스로 갖추어져서 그대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하였다. 이 조사의 말에 의하면 무심(無心)의 공덕이 한없이 많으나 단지 사상(事相: 눈에 보이는 모습)의 공덕을 좋아하는 사람은 무심의 공덕에 대해 믿음을 내지 않을 뿐이다.

옛 계승에 만일 누가 잠깐동안 고평히 앉았지만 해도 항하(恒河)의 모래수만만큼 칠보탑을 세우는 것보다 낫다. 칠보탑은 결국 티끌이 되지만 한 생각 깨끗한 마음은 정각(正覺)을 이룬다. 하였다. 그러나 무심의 공덕이 유심(有心)의 그것보다는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洪州水滸和尚 參馬祖問
홍주수호상 참마조문
如何是西來意 被馬祖
여하시서래적의 피마조
一踏踏 忽然發悟 起來撫掌大笑云
일달달도 홀연발오 기래무장대소운
也大奇也大奇
아대기아대기
百千三昧 無量妙義 只向一毛頭上
백천삼매 무량묘의 지향일모두상
便一時 識得根源去 乃作禮而退
편일시 식득근원거 내작례이퇴

13. 진심의 공덕을 시험하다(眞心驗功)

或曰眞心現前 如何知是眞心
혹왈진심현전 여하시진심
成熟無碍也
성숙무애야

물었다. "진심이 앞에 나타날 때, 어떻게 해야 이 진심이 결핍이 없이 성숙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까?"

무심의 공덕 칠보탑보다 더 크니 한 생각 깨끗한 마음 정각이룬다

據此則功德 不從外來 本自具足也
거차칙공덕 부종외래 본지구족야
四祖謂禪師曰夫大千法門
사조위나옹선사왈부백천법문
同歸方寸 河沙功德 摠在心源
동귀방촌 하사공덕 총재심원
一切戒門定門慧門 神通變化 悉自
일체계문정문혜문神通변화悉自
具足 不離汝心 據祖師語
구족 불이여심 거조사어
無心功德甚多 但好事相功德者
무심공덕심다 단호사상공덕자
於無心功德 自不生信耳
어무심공덕 자불생신이

曰學道之人 得眞心現現時
일학도지인 득진심현전시
但習氣未除 若遇境界 有時失念
단습기미제 약우속경 유시실념
如牧牛 雖到產池 拽繩順處
여목우 수조도견에수순처
猶不敢放了觀
유불감방오관
細直待心調步穩 纔入苗稼中
승직대심보조은 간진입묘가중

대답했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진심이 앞에 나타나는 때를 만났다 해도 아직 습기를 제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익숙한 경계를 만나면 때로 생각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마치 소를 기를 때, 비록 길에 잘 들어 이끄는 데로 따르다 해도 아직은 채찍과 고삐를 놓지 말고, 좀더 기다렸다가 마음이 길들고 걸음걸이가 평온해져서 곡식 밭에 들어가더라도 곡식을 밟지 않게 되어야 비로소 놓아주는 것과 같다.

김원익(시인·역경위원)

영공스님 (응선사 조실)

내가 처음 출가에 뜻을 두게 된 것은 28살에 화성 수도암을 찾게 되면서 부터였어요. 그전부터 남루한 차림의 탁발하는 스님의 모습만 보아도 마음이 설레게 불법에 인연이 지중했나 봅니다.

수도암에서 금봉스님을 은사로 머리를 깎기(법명은 昌善) 전까지 나는 문학에 관심이 많았어요. 서당에서 한문을 익힌 데다 서양문학의 새로움에 눈을 뜬 문화도 있었어요. 하지만 문학이란 것도 결국은 인생의 문제를 주로 다루는 것이라 결국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불교에 귀의하는 계기가 되었지요. 특히 인과(因果)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되면서부터 불교적인 사색도 깊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수도암에서 당시 70여세 노스님이셨던 금봉스님의 신심과 정진하는 모습에 감화되어 '나도 공부 좀 해봐야겠다'는 발심이 생기더군요. 도교를 믿던 집안에서는 출가하면 대가 끊긴다며 반대가 심했지만, 어느날 문득 친구 집 참외밭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선 출가를 단행했습니다. 집에는 부모님과 처·자식이 있었지만 가슴속에서 용솨솨치는 출가의 원을 꺾지는 못했어요. 부처님 일을 하는 것이 결국은 그들을 위하는 일이라는 확신도 컸지요.

사집은 용주사에서 마쳤어요. 대교는 당시의 대강백이셨던 박한영스님을 모시고 마하연 강원에서 공부했지요. 참선은 마하연 선방에서 한 철을 지내고 만공스님이 지도하시던 유점사 선방에서 3년을 익혔어요. 만해, 남해, 효봉스님을 비롯해 상철, 덕암스님 등 20여명의 수좌들이 함께 정진했습니다.

수좌들의 분위기는 참 진지했어요. 계율도 엄했지만 훌륭한 스승에 뛰어난 도반들이 많아서 공부가 잘 되었지요. 금강산의 절경과 장엄한 분위기는 남자를 다 잡는 불교성지다운 위엄이 있거든요.

나는 참선과 병행해 관음정진을 계속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화두가 되었습니 다.

내 두 번째 스승님은 천축사·마곡사 주지를 지내신 능성스님이셨어요. 당시 회암사 주지로 계시던 스님은 불사를 나한테 일임하고 금강산으로 떠나셨지요.

당시 회암사는 폐사 직전일 정도로 사격(寺格)이 약해져 있었기에, 복원불사가 저의 소임이라 믿고 열심히 기도하며 울 려도 하였습니다. 본래 주지 소임은 수행에 지장이 많아요. 신도들의 시주 돈과 공양물을 다루다 보면 물욕이 생기기도 쉽고 이해관계에 휩싸여 악업을 짓게도 되니까요. 하지만 이를 맡을 사람이 없으

니 할 수 없이 6.25동안 이후까지 양주 회암사 주지를 맡았어요.

6.25동안 때는 인민군들이 이동중에 주변 사람을 보는데로 불지르고 스님들을 해쳐 모두 두려워 했어요. 피난가던 스님들도 불상을 버리고 갈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나로서는 열심히 일귀 온 온 불사를 잘 회향하고 절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간절해 피난을 가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관음정진의 힘을 은근히 믿는 마음도 있었어요.

결국 나는 절과 동네 주민들을 살리기 위해 한가지 방안을 생각했어요. 잔인한 빨갱이를 칭찬하는 것은 가당치 않았지만, 우선 사람부터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인민군들이 오면 '김일성장군 만세'를 외치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눈을 속여 가며 50여명의 주민들에게 식량도 주고 잠자리도 제공하면서 위기를 모면했어요.

- 1905년 경기 양주 생
- 1933년 화성 수도암에서 박금봉스님을 은사로 득도.
- 1937년 금강산 유점사 능인계단에서 박한영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 금강산 마하연 선방 송만공스님 문하에서 참선 수행.
- 양주 회암사, 도봉산 천축사, 서울 응선사 중창.
- 현 응선사 조실



“법상에서 하는 법문도 중요하지만 몸으로 실천하는 법문이야말로 누구에게나 귀감되는 참법문”

말한 신도들이 거의 보이지 않더군요. 말하자면 자신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불보살의 도움을 받는 명훈가피를 입은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부처님의 생명과 자기 자신의 생명이 들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 자신 속에 있는 부처님의 무한한 생명력을 끌어내는 것이예요. 이것이 바로 가피인 것입니다.

당시 천축사에는 9명의 수좌들이 참선을 했어요. 현재 있는 무문관의 모체이지요. 다들 한 번 방부를 들으면 잘 나가지 않고 열심히어서 무문관의 전통이 생긴 것 같아요. 나중에 당대의 선지식인 전강스님(1898-1975)도 천축사에서 수좌들을 지도하면서 천축사 선방은 더욱 유명해졌어요.

20대 초반에 개안을 한 전강스님은 살불살조(殺佛殺祖)의 파격, 생사를 뛰어넘는 치열한 정진력 등 모든 남자(衲子)들의 수법이 된 큰스님이셨지요. 75세에 "어떤 것이 생사의 큰 문제인가(如何是

관세음보살을 한마음으로 염하면서 모든 것을 불법의 외호에 맡기니 두려움도 크지 않았습니 다.

그뒤 회암사 복원불사를 어느 정도 마 치자 도봉산 천축사 주지 소임을 다시 맡게 되었습니다. 불사에는 소질이 있다 싶어서인지 다시 주지 소임을 맡겼나 봐요. 하지만 신도도 많지 않은 가난한 절에 불사 비용 마련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다시 방안을 써야겠다 싶어 궁녀, 나인들이 포함된 부인회를 조직했 요. 절에 올 때면 주머니에 공양한 한 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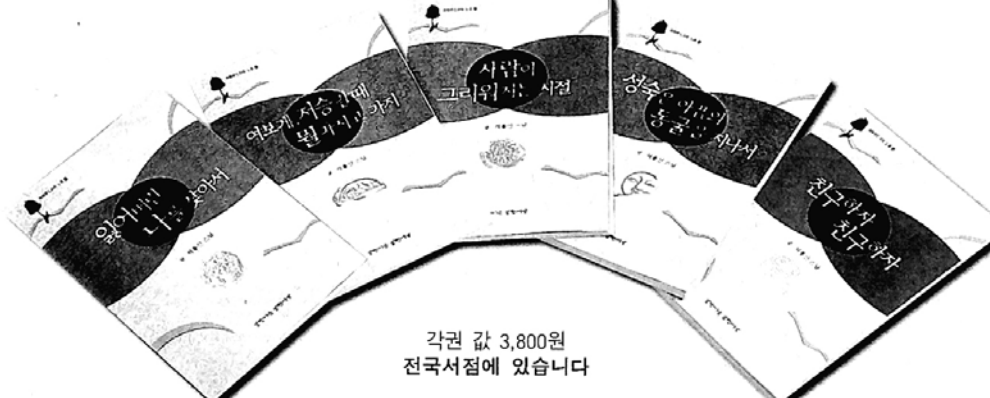
큼씩이라도 가져와 불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지는 마음을 내자 신도들이 먼저 알고 더 열심히었어요.

어느날엔 봉은사 불사를 맡았던 한 도편수가 기동하나 성한 곳이 없던 천축사에 들렀다가 중창불사를 도와주겠다는 말을 했어요. 형편이 어려운 사실을 듣고 불사비용도 나중에 내면 된다고 하더군요. 밥 먹고 살기도 힘든 때에 그만한 불사를 일으키기가 쉬운일이 아니어서, 이게 다 관음주력의 힘이 아닌가 생각돼요. 신기하게도 중창불사가 끝난 이후엔 그

도서 출판 델린마음·델린서상 전화 (051)627-5498 팩스 (051)623-3946

석용산 스님과 함께하는

마하무드라의 노래를 들어보셨습니까?



각권 값 3,800원 전국서점에 있습니다

- ①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② 여보게 저승갈 때 뭘가지고 가지 ③ 사람이 그리워지는 시절
- ④ 성숙은 아픔의 동굴을 지나서 ⑤ 친구하자, 친구하자

마하무드라의 노래는 스님이 법열속에 부르신 환희의 노래들이다. 함을 수 없는 미장속에 몸부림치며 안으로 안으로 울어 울린 신음의 소리들이 사리보다 영롱하고 빛깔보다 진한 노래가 되어 우리들의 영혼을 따스하게 적셔 줄 것이다.

- 마하무드라의 노래는 계속 출간됩니다 -



지장불교공양차제법 (地藏佛供養次第法) 델린마음·델린서상

출판기념회 5월 21일(금) 오후 8시 공덕원부산포교원 법당 부산공덕원 (051)625-2253 대구공덕원 (053)741-0066

02)994-4437-8